

옛 관점과 새 관점에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최택림 대전산성교회 장로

서론

인도 임현필선교사와 오철선교국장(대전산성교회)과 이태희 권사(대전산성교회)와 같이 줌 미팅을 통하여, 인도현지인 목회자들 복음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미안마 이연원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나라복음 강의안책을 만들 것을 권면 하셨습니다. 약 10년 동안, 복음에 관한 50여권의 신학 책을 읽고, 정리 요약하여, 선교지(미안마, 스리랑카, 베트남)와 교회(대전산성교회)에서 치열하게 복음사역을 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강의안 형식의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위 옛 관점과 새 관점 바울신학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조직신학관점과 성서신학관점에서 성경의 해석이 불일치하며, 신학교에서 복음에 대한 교육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있으며, 성경의 원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서 문자 성서주의를 고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십자가속죄교리(이신칭의)라고, 잘못알고 있는 답답한 교회의 현실에서, 복음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예수님과 바울사도가 동일하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나라"복음임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소위 말하는 새 관점이라는 신학이 출현하기 전, 이미 1950-60년에 조지래드, 리델보스, 쿨만 등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십자가 속죄교리(이신칭의)가 아니라, “하나님나라 복음”임을 강조했는데, 지금처럼 대부분의 옛 관점에 머물러 있는 주류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샌더스 등 1970-80, 톨라이트 등 2010년대~).우리가 하나님나라복음 사역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이 시대의 신학과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토대위에 철저히 묶여있어, 예수와 바울의 신학보다 우선시 되는 우스꽝스러운(?) 기독교신학과 교회의 현실이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 등 수많은 바울에 대한 연구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2019)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루터신학의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눈을 감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단시 하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복음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급격한 기독교 개혁의 필요성을, 2022년 봄에 지성업 담임목사님께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부가 복음(J.D. 그리어. 복음본색)이며, 예수의 핵심메시지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김형국목사)라고 하는데,....교회와 성경이 따로따로니, 교회와 성경이 별상관이 없는, 오직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회가 공생하기 위해, 동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강요 하는 듯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에 언급한 교회와 기독교신학의 논란과 다툼과 무시와 정죄는 기독교의 리더들인 목사들과 신학자들 간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리더들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옛 관점과 새 관점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피해는 모두 불쌍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가는데, 온몸과 마음을 다 해야지, 옛 관점과 새 관점의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옛 관점과 새 관점등 이러한 다양한 면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쟁점은, 헬라어 성경원본에서 해석과, 우리말이나 영어성경해석 내용이 다른 것을 모르는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90프로 정도의 옛 관점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새 관점 등 신학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신학의 발전이, 헬라어 성경원본의 정확한 내용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받아들이고, 종교개혁개념에 멈추어 있는, 신학과 신앙에서 예수와 바울을 다시 보는 신학과 신앙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신학과 신앙이 되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독교의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나라 복음을 배우지 못했는데, 교회의 현장에 복음이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의 윤리를 제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믿음, 구원, 죄, 의, 하나님의 의, 순종, 하나님나라(천국) 등의 성경용어가 세상용어로 둔갑되어 성경을 왜곡시키고,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옛 관점 주의자들도 신약성경의 윤리로 율법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구약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윤리와 신약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윤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없기에, 세상의 지혜나 흔적사랑이나 자기의적 선행, 경건, 거룩, 말씀, 심지어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로 제시하는 안타까운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성경의 원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말 성경용어가 헬라어 성경 원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찾아가면, 의외로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나라 복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 관점 등 바울에 대한 수많은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성경의 바울서신을, 그동안 우리가 영터리로 해석 했다는 것을 밝혀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신교가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학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용어(믿음, 죄, 구원, 의, 하나님의 의, 천국 등)를 그동안 얼마나 영터리로 이해했는지 공부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조직 신학에 머물러있던 기독교 신학이, 성서신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십자가속죄교리(이신칭의)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나라 복음임을 선포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고, 우리 역시 성서 신학의 발전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우리가 50여권의 책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십자가속 죄교리(이신칭의)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나라 복음임을 알게 해 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반대의 입장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본의 아니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 신약성경 공부를 더 깊숙이 공부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회개를 해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강의안책의 모든 내용(책 서문 포함)은 우리의 신학적 연구 내용이 결코 아니라, 50여권의 책의 저자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인용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50여권의 책을 읽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교우들에게 날마다 책 내용을 메신저로 공유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신, 이태희 권사님, 오철선교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며

성경에 십자가속죄 교리는 있어도, 십자가 속죄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속죄 교리를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조직신학자 말고 성서 신학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읽으면, 그 논지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전통적 복음인 십자가 속죄 교리, 이신칭의)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일관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읽지 않고, 세상 종말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경우, 이단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와 교회는, 성경에 십자가속죄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고집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와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머물러 있거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성경용어 해석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새 관점 등 신학의 발전에 무관심 하고, 성경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와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성서 신학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의 부분을 읽고 교리화 하는 조직신학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원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성경 해석을 우리말이나 영어의 뜻으로 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용어를 헬라어 성경 원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 죄, 구원, 하나님나라, 의,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언약 등의 성경용어에 대한 공부과정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십자가속죄교리(이신칭의)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나라 복음임을 쉽게 깨닫게 되고, 신약성경의 삶의 윤리(예수의 제자도)가 “오직 예수 주되심의 윤리”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성경에서 말하는“복음”이라는 용어의 의미

“복음”이란, 문자적으로 “좋은소식(good news)”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이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 이란 무엇일까? 이사야 52:7 에 따르면, 복음이란,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으로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선포로 집약됩니다. 이사야 40:9-10에서도, 복음이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는 선포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선포,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용성. 로마서와 하나님나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는 것이 복음의 정의이며, 이러한 헬라어 성경에서의 복음이,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 나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에서, 우리말로 “나라”라고 해석된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주되심=다스리심=왕 되심=통치하심=Kingdom".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천국)” 라는 의미는 낙원이나 천당과 같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을 통하여, 시탄(죄의 지배)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 1) 예수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 2) 예수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다스리신다.
- 3) 예수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셨다.
- 4) 예수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하나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신약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1.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예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바울)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

*루터가 주장한 복음은 십자가 속죄 복음이다.....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2.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하나님 나라 복음)=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예수 주되심의 복음)

이다.

3.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속죄교리(이신칭의)가 아니고, 하나님나라 복음입니다.
4. 하나님나라복음=예수 주되심의 복음= 예수통치하심의복음= 예수 왕 되심의 복음.
*예수 주되심의 정반대=내가 주인!: 파라오의 질서(죄의 지배)
5. 결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나라복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통적 복음: 십자가 속죄교리, 이신칭의...바울의 복음을 오해)
*이신칭의 :십자가 속죄 교리를 받아들이면....죄사함(죄용서)...의롭다 인정(칭의: 법정적)

2.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어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원본에서의 성경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 속죄 교리(이신칭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주제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의미로 “천국(Kingdom of Heaven)”이라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 나라(=천국)는, 죽어서 가는 낙원과 같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하나님 나라**=천국(하늘나라)=예수(하나님)의 주되심

=예수(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하나님)의 왕 되심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로 표기된 용어에서, “나라”는 장소개념이 아니라,

※나라 =주되심

=통치하심

=다스리심

=왕 되심

=Kingdom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실천 프로그램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예수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나의 주됨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또는 권력을, 또는 명성을, 또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그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나라 복음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이냐에 있다.

3. 성경에서 “믿음” 의 용어의미

성경에서의 믿음은 사실이나 교리를 받아들이는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의미는 언약 관계적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예수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적 신실함과 우리의 언약 관계적 신실하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믿음이라는 용어는 신실함의 뜻으로 사용되었다(하박국등)

*믿음의 전통적인 의미(복음을 십자가속죄교리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

-예수에 대한 교리에 동의 나, 명제나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의미가 아니다. 즉 십자가 속죄 교리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는 표현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틀린 이야기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신실하심= 그의 피(십자가의 죽음),=그의 아들의 죽으심=십자가 (신실함의 개념으로 읽어야지 십자가 속죄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하나님의 의)을 예수의 십자가(예수그리스도의 신실하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믿음=예수그리스도”의 의미 일 때도 있다(갈3:23)

-갈라디아서3장22절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를,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수정해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하나님의 의)을,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시하셨다 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하나님의 의)을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계시하셨다. 로 표현해야 합니다.

2) 우리의 믿음(찰스탈버트의 믿음의 7명제 참고)

믿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고(영접), 예수의 주되심을 삶으로 이루 어가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믿음과구원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십자가를 통한 예수그리스도의 언약제안을 받아들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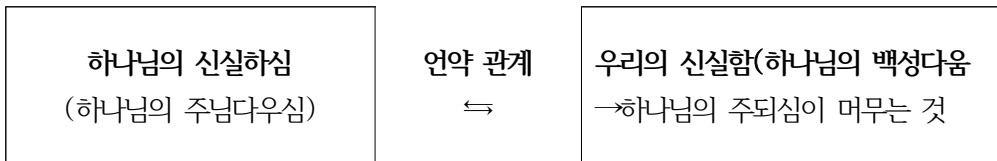
2. 신실한 삶으로 그 언약에 머뭇, 예수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작하고 완성해 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끊임없이 내어드림이 필요(하나님의

형상 회복)

- 우리의 언약적 신실함을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 우리의 신실함(=믿음)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 영접은 우리의 지적 판단으로만,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 언약제안(하나님, 예수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제안)을 받아들임. = 예수님 영접, 믿음
- 신실함(믿음)은 머무는 것이다.
-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예수)의 주되심을 사는 것”입니다.

-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한 총체적인 응답이다.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행동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감정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태도



-인간은 하나님께 신실 할 수 있는가? (인간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전적인 우리의 책임)
 -믿음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이다.

***성경에서 믿음은?**

1)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역할을 아주 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우리의 믿음=우리의 신실함=우리가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신 것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되어 주신 것을 누리는데 의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왕)되어 주신 것을 누리는데 의미를 의미합니다!

*믿음=신실함=충성=순종=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의 신실하심(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계시되었다)=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어떻게? 예수그리스도의 신실하심(믿음)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언약관계에서는 신실함을 통하여 의로워진다.**

4.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의 의미

성경에서 구원은, 십자가 속죄 교리를 받아들이면 죽은 후에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제안에 대하여 인간이 언약적 신실함(믿음), 즉 인간의 응답에 의하여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구원은, 쌍방의 언약적 신실함(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

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주 되심”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되심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주권의 전향,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작동하는 파라오의 질서를 꿰뚫어보는 눈과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
옛 관점_법정적 의
새 관점_관계적 의

***구원에 대한 똑같은 의미의 그림언어**

- 칭의(법정적의미)
- 성화(제의적관점)-거룩
- 하나님의 자녀(가족의 언어=양자)
- 새로운 피조물(존재론적)
- 부활 ●영생 ●왕 같은 제사장
- 의롭게 됨=하나님과 온전한 관계회복

***십자가 속죄 교리에서 구원은? 죄사함? 천국?**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성경에서 구원은 인간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즉, “샬롬”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육체의 구원(회복)까지 포함한다.**

*** 또 다른 구원의 의미로,**

- 1) 화해(화목)-사회학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의미한다.
- 2)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 즉, 자유도 구원의 의미.
- 3)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 상태도 구원의 의미.
- 4)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선한행위와 구원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5. 성경에서 “죄”의 용어의 의미

성경에서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원본이 헬라어로 되어있으며, 헬라어 성경 원본에서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언어적 어려움이 있다는 데서, 성경을 문자 주의자들처럼 단순하게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경에서 “죄(Sin)”란? 환경적이며 내면적이다.

- 1) 죄의 세력/사탄의 다른 이름/ 죄의 지배, 죄의 통치 범죄
- 2) “하나님(예수)의 주되심(=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죄의 지배”를 따르는것.
- 3) 그로부터 결과하는 악한 행위와 열매들.

※ 성경에서 “죽음(The death)”이란? :범죄의 결과

- 1)생물학적 죽음.
- 2)근원적 죽음.
 - 육체적, 사회적, 문학적, 심리적 고통으로서의 죽음
 -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서의 죽음.
- 3)사탄의 다른 이름(우리를 지배하는 세력).

*죄=죽음=사탄=어둠의 세력=이 세대=어둠의 권세.

*성경에서 “이 세대” 의 의미

- 1) 이 세대의 기간.
- 2) 이 세대의 기간을 지배하는 통치자들 :사탄, 현실국가통치자들(로마제국) 죄의 지배에 해당.
- 3)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 4) 이 세대 통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나라(오는 세대, 종말시작) :이 세대와 하나님나라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유대인의 역사관, 인자의 도래를 중심으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죄의 지배(사탄의 지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하느냐, “사탄의 주됨”을 선택하느냐, 양자택일 해야합니다.

질문) 성경에서, 우리“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에서 죄가 무엇일까요?!십자가 속죄교리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죄만 의미할까요?!그래서, 헬라어 성경원본에서 “죄”의 대한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현실, 파라오의 질서가 유지되는 이 세대.

*우리가 성경의 “죄”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복음(하나님 나라=예수 주되심)이 여전히 삶과 관계없는 추상적, 관념적, 초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아직 파라오의 질서(죄의 지배 시스템)속에 있는 우리의 실존, 즉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이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6.성경에서 “의”라는 용어의 의미

성경에서 “의”는 구원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옛 관점에서는 법정적 용어의 의미이고, 새 관점에서는 관계적인 용어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성경의 역사(이야기)는 언약의 역사(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과 언약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제안을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된 삶을 살아가갈 때, 비로소 언약관계가 성취되어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역할을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실제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의”란?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의롭다”:언약에 신실함에 의하여 양쪽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면, 우리가 의롭다.

***의롭다**=온전한 언약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 어떻게 하면 의로워 지나요 신실하면 의로워 진다. 예수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예수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친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다.

7.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의 의미

※ “하나님의 의”란?

1.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2.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롯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
3.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심(구원)으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계시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비로소 계시된다.

*복음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의 주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주되심)로 계시되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로마서의 주제를 옛 관점에서는 이신칭의, 새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사탄을 주로 여기고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해방하심)

⇒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신 2가지 목표(로마서)**

- 1)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 2)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

8. “이신칭의”라는 용어의 의미

※ 옛 관점(전통적 개념)

- ①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
- ②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 ③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낙원? 십자가 속죄교리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낙원?
- ④ 종말 심판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종말 심판이란, 우리가 죽은 후 나 예수께서 재림 시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법정에 섰을 때) 죄가 있으면 사형선고(지옥), 예수 십자가 교리를 믿는 사람은 무죄(천국) 판결?

- ⑤ 전통적인 개념의 이신칭의(십자가 속죄의 복음)는 루터가 주장?
- ⑥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신칭의 복음)이 바울이 주장한 복음일까? 죽은 후, 천국?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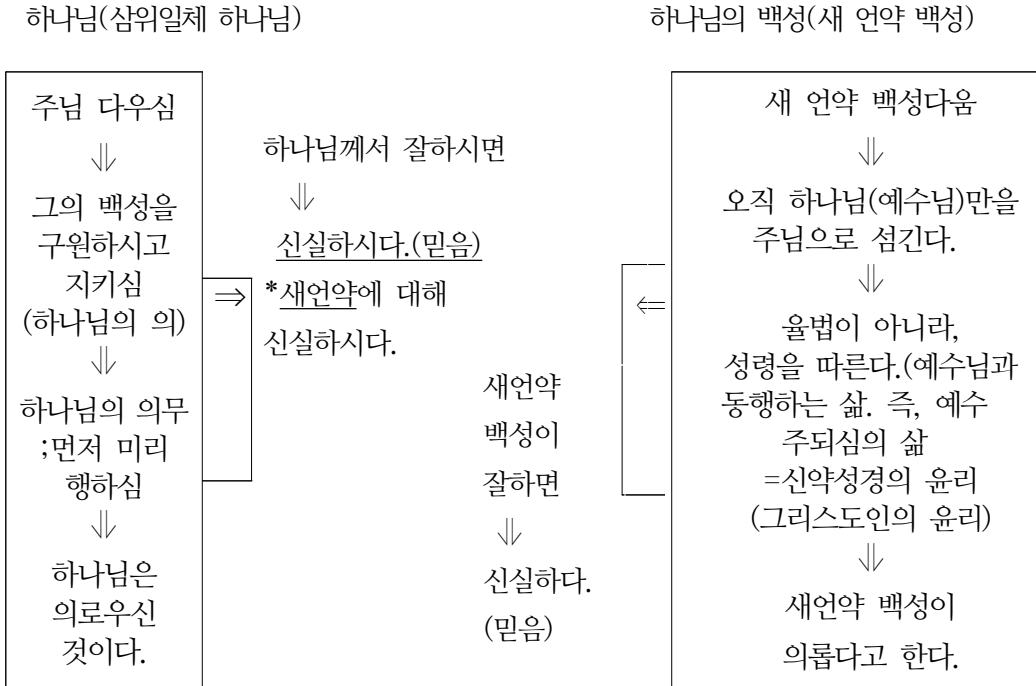
※ 새 관점

- 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는 목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율법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을 옹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유대인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 ②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용어 이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신실함)으로 의롭게 된다.”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잘못 해석되고 있었다. 즉, 윤리가 아니라 교리로 구원 받는다는 개념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었다. 이신칭의는 행위와 믿음의 명제가 아니라, 율법(유대인의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제이다.
③ 이신칭의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의롭게 됨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음=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룸=구원

9. 성경에서 말하는“언약”이라는 용어의 의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새)언약관계>

※ 언약의 요구사항: 쌍방의 신실함 (믿음)



- 1)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고대 근동 당시의 언어로 표현한 용어이다.
- 2) 언약은 하나님께서 역사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 즉,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로 차용 된 것이다.
- 3) 언약(베리트)은 구약 전체에 걸쳐 220번 정도 나온다. 언약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다.
- 4) 성경의 구조는 단순히 언약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언약으로 다루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 5) 언약이라는 용어로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학자들이 제안한 중심 개념을 포함한 중심개념이라 단언 할 수 있는 것이다.
- 6)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은 언약으로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7) 언약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있었던 것이고, 성경의 저자들은 언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 구원 행위를 이야기로 전달했다. - 『킹덤복음』 中.. 지음:이종필 참고

8) 성경이 보여주는 언약의 역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②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됨③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심④ 언약 관계 회복: 주님의 영원한 통치 |
|---|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언약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복음의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中 지음: 안용성 참고

9)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10)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11) **언약 관계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12)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언약 이야기”라 할 수 있다.

13)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심(하나님의 의)⇒하나님께서 잘 하시면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신실(믿음)하시다.”

㉡오직 하나님(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주 되심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대해 신실(믿음)하시다.”

따라서, 믿음은 교리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언약 관계적 신실함을 의미한다.

14) 성경이 언약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이다.

15)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속의언약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및 다윗을 거쳐, 예수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16) 복음을 제시할 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며 율법적 정죄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인류와 하나 님은 본래 친밀한 언약관계로 맺어졌다는 은혜의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① “의”란?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의롭다”: 언약에 신실함에 의하여 양쪽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하나님의 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면 “우리가 의롭다.”

③ **하나님의 의**

a)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b) 그 신실하심에 비롯된 하나님의 구원행동

c)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가리킨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심으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④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계시된다.

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비로소 계시된다.

⑥ 복음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⑦ 언약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⑧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언약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의 용어를 언약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이해가 됩니다.

⑨ a)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심(하나님의 의) ⇒ 하나님께서 잘하시면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신실(믿음)하시다.”

b) 오직 하나님(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주되심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대해 신 실(믿음)하다.”

※ **기독교의 삶의 윤리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예수의 제자도, 신약성경의 삶의 윤리)

↳ **“오직 예수 주 되심의 윤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 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주되심을 누리는 삶을 말한다. 즉, 성령을 누리는 삶을 말한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33절)

2) 모든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로마서에서의 삶의 윤리) 즉, 예수 주되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누가복음10장27절)

4)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로마서12장2절) → 하나님의 뜻=사랑(율법 완성)

5) 선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 즉, 예수 주되심을 이루는 삶이다.(로마서)

***육신을 따르는 것:** 죄의 지배를 따르는 것=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16)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6)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요구한다.(삶의 주체는 하나님)→(갈라디아서5장 22절~23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양선, 오래 참음

7) 로마서5장~8장

8) 마태복음7장21절에서 “행하는 자”는 예수 주되심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

-성령(성령의 법)을 따라 행한다.: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르는 것(성령의 열매)

-육체를 따라 행한다.:죄의 지배를 따르는 것

9) 우리 신앙인의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장1절):
“산 제물”=살아있다=자유로운 존재(하나님의 뜻= 내뜻)

*신앙생활에서 자유란?

1.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한다.(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만이 자유함을 경험

할 수 있다). 반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

2. 진정한 자유는 내면화된 율법도 아니고 육체의 욕망도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 가능하다.

3. 나의 뜻을 억압하면, 내면화된 율법을 나의 뜻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4.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

5. 나의 뜻을 억압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대해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
울 수 있으며, 신 앙과 윤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알 수 있다.

6.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조화)시키는 과정=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너 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과정)=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

7.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가 어떤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를 경험 할 수 있다.

8.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의 뜻을 잘 오해하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율법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율법과 동일시
된 하나님은,

1)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2)내가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힘들게 해야만 하는 길이 되고 만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는 자유를 경험 할 수 없다.

12. 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유, 내 뜻이 살아 있어야 자유함,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1.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2. 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13. 내 뜻을 모르는 이유(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잘 모름)

1) 내 뜻이 없고 내면화된 율법을 내 뜻으로 착각.

2) 육체의 욕망을 내 뜻으로 혼동.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 뜻으로 착각...이 시대 욕망을 부추키는 환경: 집, 옷, 돈, 공부.

※ 구약 성경의 삶의 윤리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신약 성경의 삶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다. 율법은 삶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윤리가 아니다.

1) 갈라디아서 2장19절~21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 로마서 6장14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아래에 있노니”

3) 갈라디아서 5:1-“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4) 고린도전서15:56-“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2:20 개역개정)

6)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3:2 개역개정)

7)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갈라디아서3:5 개역개정)

8)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라디아서3:10 개역개정)

9)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르킨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3:19 현대어성경)

10)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게 율법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온 것입니다.(갈라디아서3:23 현대어성경)

11)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 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갈라디아서 3:24 현대어성경)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은 이 이상 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갈라디아서3:25 현대어성경)

13)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였습니다.(갈라디아서4:3 현대어성경)

14)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5 개역개정)

15)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4:9 현대어성경)

16)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5:1 현대어성경)

17)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5:4 개역개정)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갈라디아서5:18 개역개정)

19) 그가 또 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이니라(고린도후서3:6 개역개정)

20)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5:4 개역개정)

2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이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5:1 개역개정)

※ 성경 용어의 성경적 의미 정리의 Protocol ※

1.(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 유대인의 역사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 “오는 세대”를 말하는데, 이세대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나라와 이세대가 같이 있다.

2. 헬라이어 성경 원본: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시에 헬라이어 성경원본에서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해 야지, 루터식의 용어의미로 표현하면 안된다. 즉, 단순하게 우리말이나 영어의 의미로 표현하면

안 된다.

3. 삼위일체 하나님 : 예수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4.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 관점으로 읽는다. -천년 왕국을 예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로 본다.
5. 조직 신학과 성서 신학의 조화: 조직신학에 매몰된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김선용 신학자).
6. 성경의 복음이 십자가 속죄 교리(이신칭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수 주 되심) 복음입니다.
7. 문자성서주의 배격.
8. 옛 관점과 새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바클레이의 6가지 은혜의 개념. 탈버트의 바울이 말하는 7가지 믿음의 개념이 적용.
9. 하나님 나라(=예수 주되심)의 반대개념은, 지옥이 아니라, 죄의 지배(사탄의 지배).
10. 루터의 종교 개혁적 신학과 신앙의 성서해석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 관점 등 바울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연구를 공부하여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 참고문헌 ※

- 1)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란노.
- 2)툰라이트. 이것이 복음이다. Ivp 2017.
- 3)스캇 맥나이트. 예수 왕의복음. 새물결플러스2014.
- 4)신성관. Simply Gospel. 새물결플러스.
- 5)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서유니온선교회.
- 6)김균진. 예수와 하나님나라. 새물결 플러스.
- 7)이종필. 킹덤 복음. 아르카.
- 8)마이클 고먼.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새물결 플러스.
- 9)안용성. 두이야기가 만나다-요한계시록 서사로 읽기.새물결 플러스.
- 10)안용성. 로마서와하나님나라. 안용성.
- 11)임영수. 하나님과함께하는 일상. 두란노.
- 12)최흥진. 요한복음. 한국장로교 출판사.
- 13)코트니 앤더슨. 아도니람저드슨의 생애. 좋은씨앗.
- 14)존 파이퍼. 열방을 향해 가라. 좋은 씨앗.
- 15)박영선. 하나님의 의. 합신대학원출판부.
- 16)박영선. 믿음의 본질. 세움.
- 17)케네스 해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수 있는가?. 믿음의 말씀사.

- 18)그레엄골즈워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성서 유니온.
- 19)오대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전도단.
- 20)조남환. 미션라이프 굿웨이.
- 21) 바실레아 슈링크.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규장.
- 22)막스 터너. 성령과 권능. 새물결플러스.
- 23)김세윤. 칭의와 하나님나라. 두란노.
- 24)김영철. 불편한 복음. 씨숲
- 25)강희창. 복음은 그런게 아닙니다. CLC.
- 26) 팀켈로. 복음과삶. 두란노(2018)
- 27)팀켈러. 복음을 입다.
- 27)김병삼. 텅빈 경전-위선 가득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
- 28)김병삼. 누가 왕인가? Radical Faith 믿음으로 반응하라.
- 29)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2019).
- 30)유기성. 예수소망- 바벨론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다 요한계시록.두란노서원(2019)
- 31)마를린 바틀링-툼라이트는 처음입니다만-툼라이트의 하나님나라 신학 입문.
- 32)김세윤 외. 하나님 나라복음-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 33)스캇 맥나이트. 하나님나라의 비밀-하나님 나라 네러티브와 교회의 비전과 사명.
- 34)조정민. 왜 성령인가?- Why Holy Sprit.
- 35)김형국.사도 행전과 하나님나라. 성서유니온선교회(2018).
- 36)김용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규장.
- 37)조용우. 평신도가 성경의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
- 38)조용우저. 하나님 나라.
- 39)허운석.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 40)폴트립. 복음묵상.
- 41)J.D. 그리어. 복음본색. 새물결 플러스.
- 42)티시 헤리슨 워런. 오늘이라는 예배. IvP.
- 43)차정식. 성서주석(로마서).-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대한기독교서회.
- 44)복음과 하나님 나라. 성서 유니온.
- 45)매튜W. 베이츠.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새물결플러스(2020).
- 46)달라스 월라드. 하나님의 모략. 복있는 사람(2015.)
- 47)존 M.G.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개념 연구. 새물결플러스(2019).

- 48)김형국,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성서유니온 선교회(2018).
- 49)김세운, 김회권, 정현구. 하나님 나라 복음. 새물결플러스(2013).
- 50)마이클J. 고먼,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 새물결플러스(2019).
- 51)캔트 L잉거.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개요. 감은사(2022).
- 53. 제임스 던,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감은사(2018).
- 54)이재훈. 나의나라에서 하나님나라로. 두란노